

# 30년만 엄정화 아닌 '차정숙'으로... "놀라운 경험"

JTBC 주말극 '닥터차정숙' 시청률 4.9% → 18.5% 막 내려 20년 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 '차정숙'의 성장기

엄정화(54) 주연 JTBC 주말극 '닥터차정숙'은 기대작이 아니었다. 이보영 주연 '대행사'와 조승우 주연 '신성한, 이혼'에 편성이 밀려 촬영을 모두 마친 후 전파를 뒀다. 뻔한 불륜 소재 드라마라고 예상했는데, 20년 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엄정화)의 성장기가 시청자를 울고 웃겼다. 1회 4.9%(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출발, 16회 18.5%로 막을 내렸다. 20%를 넘지는 못했지만, JTBC 드라마 역대 시청률 4위다. 무엇보다 엄정화는 1992년 영화 '결혼 이야기'로 데뷔한 후 30여 년만에 캐리커로 불린다며 신기해했다. 그동안 가수와 연기 활동을 병행했지만, 드라마 흥행작은 거의 없었기에 더욱 기뻐했다. "얼마 전 고대 축제에 갔을 때 다들 차정숙이라고 부르더라. 30년을 일 해왔지만, 드라마로 이렇게 사랑 받은 적이 없다. 친근하게 반응해줘서 새롭다"며 "차정숙이 인생게가 된 것 같다. 항상 밖에 나가면 '엄정화씨'라고 불렀는데, 이제 더 반가워하고, 친근하게 차정숙 얘기를 하더라. 캐리커 이름으로 불리는 게 놀라운 경험"이라고 털어놨다.

"촬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고, 닥터 차정숙이 안 되면 모든 게 내 탓 같은 중압감이 있었다. 이 작품이 자신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야기 자체가 잔잔하고 착해서 반응이 좋았다. 사실 이렇게 까지 웃길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다. 물론 김병철 씨가 잘 살려줘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정숙의 성장하는 과정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았다. 이 두 가지를 공감해줘서 모든 게 좋았다."

닥터차정숙은 의학 드라마라기보다, 불륜을 소재로 해 '막장'에 가까웠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 20~30대까지 아우르며 호응을 얻었다. "진짜 신기하다"며 "연령층 구분 없이 본 것 같다. 일단 재미있고 전개가 빠르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지 않았다. 요즘 친구들은 일단 재미있고 진심이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나이 때문에 받는 타박이 공감됐다'고 털어놨다. 인호가 '너 이렇게 해서 의사 되면 곧 50이야'라고 하자, 정숙이 '100세 시

대에 50이면 청춘이지. 뭐 그래'라고 하는 신이 대표적이다. 정숙이 부장한테 깨질 때도 '나이가 많다고 실수까지 무능으로 치부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정숙과 나의 세대를 대변해주는 느낌이었다"고 짚었다. "정숙은 진짜 '사이다'다. 돌려까기라고 하나. 배우고 싶다"고 웃었다.

마지막회에서 정숙은 '서인호'(김병철)와 이혼 후 홀로서기 했다. '로이 김'(민우혁)과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결말은 굉장히 만족한다"고 했다. "실시간 댓글을 보면서 본방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정숙의 선택을 응원하더라. 누구의 어떤 사람이 아닌,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정숙이 마음에 들었다"며 "시즌2가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근데 할 얘기가 있을까? 의사로서 모습 많이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바랐다.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며 "좋아하는 것 하나라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운동 등 취미조차도 갖지 못하고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시작하면 다른 시야가 열린다. 생활의 즐거움을 얻고, 또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엄정화는 주로 로맨틱 코미디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물론 로코물에 갇힐까봐 두려워 스릴러 등 다른 장르를 선택한 적도 있다. "같이 가져갈 것"이라며 "이제는 어떤 장르에도 갇히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지금껏 해온 것들이 보이더라. 여태까지는 엄정화로써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열정만 식지 않는다면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또 도전하고 싶은 건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오래, 깊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tvN 예능물 '댄스가수 유랑단'을 통해서도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김완선(54)을 비롯해 이효리(44), 보아(37), 그룹 '마마무' 화사(28)와 함께 전국투어 콘서트를 돌며 팬들과 만나는 이야기다. 축제 '직캠' 영상에서 20대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무대에서는 따라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렸



다. 만약 들렸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감동해서 울었을 것"이라며 "몇 년 전부터 앨범을 준비했다. 올해 안이나 내년에는 앨범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많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곡을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나이가 들 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기도 했다. 기사를 보면 나이가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내 나이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건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 '그

림에도 불구하고 난 내 나이가 자랑스러워' '난 할 수 있어'라며 스스로 응원하는 편이다. 요즘 행복지수는 99.9%다. 이런 순간을 만나기 어렵다. 최대한 느끼고 싶어서 아침부터 '아-기분 좋다. 닥터차정숙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웃음)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스스로 칭찬할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아박했구나'라고 깨달았다. 마흔 지나서는 생각을 바꾸게 됐다."



## YG, 지디와 전속계약 만료 "별도 계약 통해 협력 중"

YG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GD)과 전속계약은 만료됐으나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YG는 5일 "현재 지드래곤과 전속계약은 만료된 상황이며, 광고 등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력 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YG는 "음악 활동 재개 시 추가적인 계약을 협의할 예정이며, YG는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공개된 YG의 분기보고서에 지난 3월31일 기준 계약된 가수 명단에 지드래곤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이를 두고 지드래곤이 YG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현재 빅뱅 멤버 중 지드래곤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모두 YG를 떠났다. 태양(동영배)은 YG를 떠나 YG 관계 회사인 더블랙레이블에 소속됐다. 최근 알앤디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성은 본인을 위한 전담팀인 '디-레이블(D-LABLE)'을 통해 활동한다. 일찌감치 지난해 독립한 탑은 최근 빅뱅 탈퇴를 기정 사실화했다.

지난 2006년 데뷔해 올해 18년차를 맞은 빅뱅은 '가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2세대 K팝 그룹 대표로 통한다.

지드래곤을 중심으로,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프로듀싱돌'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듣는다. 2017년 탑을 시작으로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면서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보냈다. 특히 성 스캔들에 휩싸인 승리가 지난 2019년 팀을 탈퇴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을 발표해 음원차트를 휩쓰는 등 여전히 저력을 과시했다.

일부에서 향후 빅뱅 팀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YG는 "빅뱅 단체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날도 빅뱅 향후 행보에 대해 "활동 재개가 확정되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수 임영웅, '명불허전' '모래알갱이' 음원차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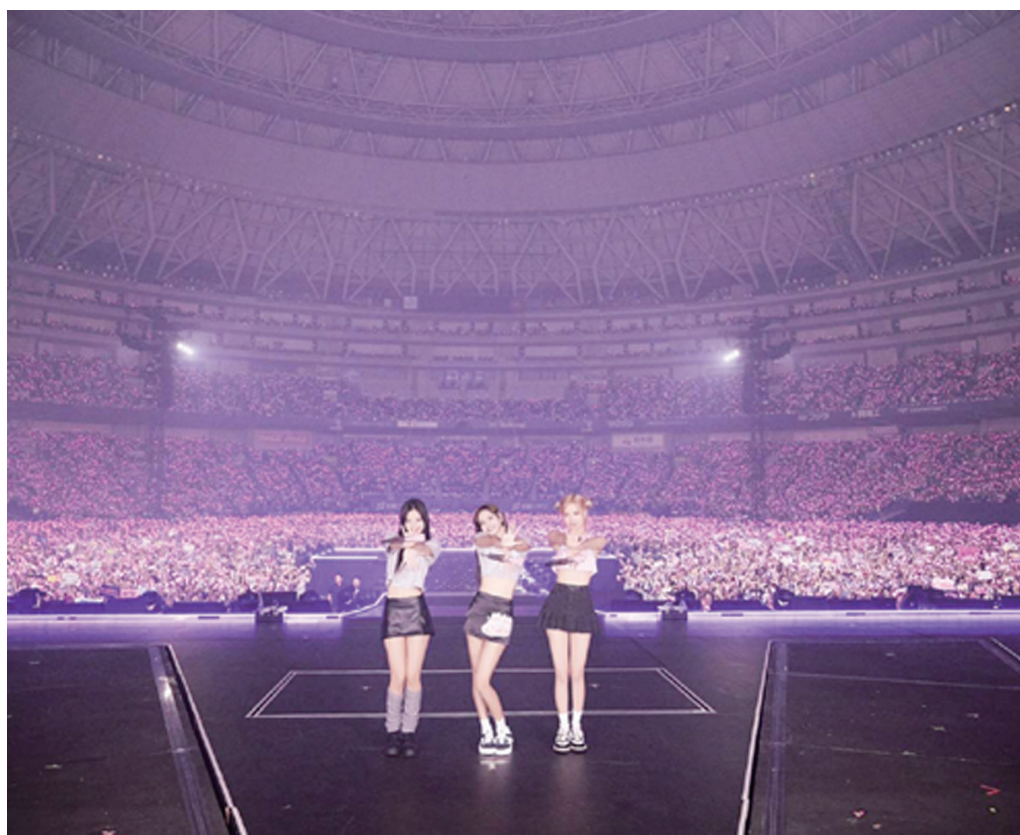
톱 가수 임영웅이 '음원차트 강자' 이름값을 확인했다.

6일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 따르면, 임영웅이 전날 음원 플랫폼에 공개한 신곡 '모래알갱이'가 이날 오전 8시 현재 멜론 실시간 차트인 톱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발매 직후인 전날 오후 9·10·11시에도 톱100 정상에 올랐다.

지난 24시간 이용량을 멜론 톱100 등에 반영하는 멜론은 다른 음원 플랫폼에 비해 신곡이나 단기간에 인기를 얻은 곡이 상위권에 진입하기 쉽다.

## "지수 뭉까지"...블랙핑크 3인, 日 교세라돔 공연 성료

도쿄·오사카 2개 도시 4회 공연에 21만명 운집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멤버 지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부재에도 두 번째 일본 돔 투어를 성료했다.

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3~4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본 핑크'를 열고 총 10만명을 만났다. 앞서 지난 4월 도쿄돔에서 11만 명의 팬들과 만났던 만큼 이번 투어로 일본 2개 도시·4회 공연을 통해 총 21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기록을 썼다.

교세라 돔은 블랙핑크가 '해의 걸그룹' 사상 데뷔 후 최단기간 입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던 공연장인 만큼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의미가 남달랐다고 YG는 전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 회차 매진을 달성했고, 팝업스토어도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지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다. 제니·로제·리사

는 오랜 기간 기다려온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셋이서 무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지수는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무대 위에서 더 열심히 퍼포먼스를 해 줄 멤버들에게 큰 응원과 힘이 돼달라"고 밝혔다.

팬덤 블링크는 지수가 없는 무대를 더 응원하기 위해 더욱 뜨거운 환호성으로 공연장 열기를 예열했다. 강렬한 에너지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으로 오프닝을 꾸민 멤버들은 "다시 오게 돼 기쁘다. 지수 언니가 못 오게 돼서 많이 걱정하고 아쉬워하며 오사카 팬들 보고 싶었다. 저희 세 명이서 지수 언니 뭉까지 열심히 할테니 신나게 즐겨달라"고 각오를 다졌다.

멤버들은 열정을 다해 지수의 빈자리를 꼭 채웠다.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 '휘파람'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셧 다운(Shut Down)' '뚜두뚜두(DDU-DU DDU-DU)' 등의 메가 히트곡 무대를 연달아 펼쳤다. 풍성한 라이브 밴드 사운드가 힘을 보탤었다.

YG는 "각양각색 매력에 담긴 솔로 퍼포먼스부터 앙코르 무대까지 쉼 없이 달린 블랙핑크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현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팬들은 스테이지 곳곳을 누비며 교감해준 멤버들을 향해 박수와 함성을 보내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돔 투어를 성황리에 마친 블랙핑크는 멤버 로제가 유년기를 보낸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로 발걸음을 옮긴다. 오는 7월 열리는 영국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에서는 K팝 아티스트 최초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른다.

뉴스



## '스우파', 2년 만에 시즌2 컴백...오는 8월22일 첫방

신드롬을 일으킨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Mnet)의 여성 댄스 크루 서바이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2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다.

5일 엠넷에 따르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이하 '스우파2')가 오는 8월22일 첫 방송한다.

2021년 첫 방송된 '스우파'는 최고의 여성 댄스 크루 자리를 놓고 여덟 팀이 자존심을 걸고 펼치는 춤 싸움으로 크게 화제가 됐다. 모니카, 하니제이, 리정, 아이기, 가비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경쟁을 넘어선 출연자들의 우정과 연대를 보여주며 '제 58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